

“탈모증 때문에 취직실패”자살

96.6.14 ○...명문대 대
이석 학원을 나온 30
대가 원형탈모증
으로 취직시험에

번번이 떨어진 것을 괴로워하다
목숨을 끊었다.

취업 재수생인 봉아무개(32·경
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)씨는 지
난달 31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용
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1번 교각
옆에서 강물로 뛰어들어 2시간 만
에 숨진 채 발견됐다.

봉씨는 조사 결과 지난 83년 서
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91년
석사과정을 마쳤으나 입사시험에
서 계속 낙방하자 원형탈모증 때
문이라고 비관해, 3년 전부터 조
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
졌다.

봉씨의 형(43)은 “동생이 탈모
증 때문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등
열등감에 시달렸으며 실제 외모
때문에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면
접에서 수차 낙방해 괴로워했다”
고 말했다.

노형석 기자